

Why?



왜 '0'을 'love'라고 하나요?

테니스 점수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독특하다. 야구와 축구에서는 득점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지만 테니스에서는 한 번에 15점 또는 30점을 획득하게 된다. 테니스 태생이 귀족 스포츠라 다른 스포츠보다 더 후하게 주는 것일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 시스템은 이제 막 테니스에 발을 담근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테니스 점수는 과학적이면서도 사랑스럽다. 당신의 테니스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 'Why?'에서 테니스 점수의 시스템을 낱알이 파헤쳤다.

알쏭달쏭 테니스 점수 시스템

테니스 점수는 크게 포인트(Point), 게임(Game), 세트(Set)로 나뉜다. 포인트가 모여 게임이 되고 게임이 모여 세트가 된다. 즉, 네 번 이기면 한 게임을 따고 여섯 게임을 따야 한 세트를 따는 것이다. 포인트는 0, 15, 30, 40, Game으로 구분되는데 점수 배열이 학창시절 따분한 수학 시간에 배운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다. 15의 배수로 나열되다가 뜬금없이 40이 등장한 것을 보면 테니스 점수에는 어떠한 규칙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테니스 점수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초창기 테니스 점수는 0, 15, 30, 45 등 15의 배수로 이뤄졌다. 이는 유럽에서 점수를 기록할 때 1점마다 15분씩 시계바늘을 옮긴 것에서 유래했다. 즉, 0은 12시, 15는 3시, 30은 6시, 45는 9시를 가리켰다. 그런데 듀스가 되면 더 이상 시계바늘을 옮길 수가 없었고 게다가 듀스에서는 두 차례 이겨야 하기 때문에 두 칸이 더 필요해 30 이후 점수는 8시와 10시를 사용했다. 10시는 듀스에서 한 포인트를 먼저 딴 어드

밴티지(Advantages)이고 한 포인트 더 따면 시계바늘은 12시로 가게 된다. 6시부터 12시까지를 3등분 하다 보니 결국 8시에 위치해야 했고 그래서 45가 아닌 40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 세트가 6경기인 것은 천체를 관측할 때 다리가 60도까지 벌어지는 컴퍼스를 사용했는데 유럽인들이 1/6 개념을 테니스에 적용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있다. 즉, 한 세트를 6경기로 정함으로써 '60도짜리 조각 6개를 맞추어 360도 원을 만드는 사람이 곧 승리자'라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45가 40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발음상의 편의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심판이 점수를 부를 때 '45(forty-five)'는 아무래도 불편하고 다른 숫자와 헷갈려 '40(forty)'으로 바뀌 불렀다는 설이 있다.

성경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홍수 일지가 40일이고 예수와 모세가 수련을 한 기간이 40일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4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옮기고 그를 판단하는데 이를 테니스에 적용 시킨 것이다. 즉, 40을 넘겨야 게임을 따는 것이다.

테니스는 게임의 수가 홀수일 때마다 코트를 바꾸는데 이것은 바람이나 태양과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해 특정 선수에게 이익이 가지 않고 공평하게 경기를 하기 위함이다.

러브(love)의 어원은?

테니스에서 0을 '러브'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테니스를 처음으로 고안한 나라로 추정되는 프랑스에서 '0'을 의미하는 단어로 '알' '달걀'이라는 뜻의 '뢰프'('oeuf')를 사용(알의 모양이 0과 비슷해서)하였는데 이 단어가 영국으로 건너가 '러브'가 되었다는 설이다. 스코틀랜드어로 '0'을 의미하는 '라프'가 '러브'로 변형됐다는 설도 있다. 이밖에 영국의 한 귀족이 여자 친구와 함께 테니스를 하는데 여자 친구가 실력이 서툴러 한 점도 얻지 못해도 사랑스러워 0을 러브라고 불렀다는 속설도 있다.🐣

글_ 박준용 기자 사진_ GettyImagesBank